

##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I. 주요국 경제 동향 .....	1
II. 국내 경제 동향 .....	4
III.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	7
IV. 국제자원시장 동향 .....	10
V. 당행 주요 지원 산업 동향 .....	12

확인 : 팀            장 이재우 (3779-6685)  
                         [Jaewoolee@koreaexim.go.kr](mailto:Jaewoolee@koreaexim.go.kr)  
작성 : 선임연구원 양종서 (3779-6679)  
                         [flydon@koreaexim.go.kr](mailto:flydon@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강정화 (3779-5327)  
                         [nicekang@koreaexim.go.kr](mailto:nicekang@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김윤지 (3779-6677)  
                         [yzkim@koreaexim.go.kr](mailto:yzkim@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성동원 (3779-6680)  
                         [dwsung@koreaexim.go.kr](mailto:dwsung@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이미혜 (3779-6656)  
                         [mihyelee@koreaexim.go.kr](mailto:mihyelee@koreaexim.go.kr)  
조 사 역 나혜영 (3779-5709)  
                         [nhy@koreaexim.go.kr](mailto:nhy@koreaexim.go.kr)

## I. 주요국 경제 동향

### 1. 미국

#### □ 경제 회복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바탕으로 기준금리 추가 인상(6.14) 단행

- (산업동향) 5월 산업생산은 제조업생산 감소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동일수준 유지[4월:1.1%], 제조업지수는 9개월 연속 기준선(50) 상회\*,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3% 감소하며 16개월래 최대 감소폭 기록

\*ISM 제조업지수(기준=50): ('17.2)57.7 → (3)57.2 → (4)54.8 → (5)54.9

- (수출입) 4월 수출 전년동기대비 5.0% 증가[3월:6.4%]한 \$1,910억 달러, 4월 수입 전년동기대비 8.3% 증가[3월:9.0%]한 \$2,386억 달러 기록하며 전조한 증가세
- (고용·물가) 5월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대비 1.9% 상승하여 3개월 연속 상승속도 둔화, 4월 PCE물가지수\* 증가율(1.7%) 역시 연준 목표치(2.0%)를 미달하였으나, 5월 실업률이 4.3%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6월 금리 인상을 뒷받침

\*PCE물가지수 증가율(y-o-y): ('17.1)1.9% → (2)2.1% → (3)1.9% → (4)1.7%

- 최근 물가지표 부진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엘런 의장은 고용시장 개선세가 향후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금리 인상의 정당성을 피력

### 2. 유로존

#### □ 생산·소비 등 실물지표 양호, 1분기 실질GDP 성장률 0.6%(전기비)로 상향 조정

- (산업동향) 4월 산업생산 전월대비 0.5%[3월:0.2%] 증가, 제조업 PMI\* 또한 상승세 지속(73개월래 최고치), 4월 소매판매 전월대비 0.1% 증가[3월:0.2%]하며 4개월 연속 증가세

\*제조업 PMI(기준=50): ('17.2)55.4 → (3)56.2 → (4)56.7 → (5)57.0

- (수출입) 4월 수출 전년동기대비 0.6% 증가[3월:2.6%]한 \$1,950억 달러, 4월 수입 전년동기대비 4.7% 증가[3월:4.9%]한 \$1,736억 달러 기록하여 성장 흐름 지속

- 유로화 기준으로는 수출, 수입 전년동기대비 각각 5.5%, 9.9% 증가

- (고용·물가) 4월 실업률 전월대비 0.1%p 감소한 9.3% 기록('09.3월 이후 최저치), 5월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대비 1.4% 상승, 유럽중앙은행(ECB)의 목표 범위("below but close to, 2%")에 미달하여 양적완화 축소 압력 약화

### 3. 일본

#### □ 생산·소비·수출 등 실물지표 개선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 시현

- (산업동향) 4월 산업생산 전월대비 4.0%[3월:△1.9%]로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5월 제조업 PMI\*는 9개월 연속 기준선(50) 상회, 4월 소매판매 전월대비 1.4% 증가[3월:0.2%]하며 증가폭 확대

\*제조업 PMI(기준=50): ('17.2)53.3 → (3)52.4 → (4)52.7 → (5)53.1

- (수출입) 5월 수출 전년동기대비 12.0% 증가[4월:6.4%]한 \$572억 달러, 5월 수입 전년동기대비 16.1% 증가[4월:11.0%]한 \$560억 달러 기록하며 견조한 회복세 지속
- (고용·물가) 4월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2.8%로 약 23년 만('94.6)에 최저치 기록, 4월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대비 0.4% 상승[3월:0.2%]하며 低물가 지속

### 4. 중국

#### □ 생산·소비·수출 등 실물지표 양호, 안정적 성장 흐름 지속

- (산업동향) 5월 산업생산 전년동기대비 6.5% 증가[4월:6.5%], 5월 제조업 PMI\*는 51.2(기준=50)로 10개월 연속 확장세, 5월 소매판매 또한 전년동기대비 10.7% 증가[4월:10.7%]하며 전월과 동일한 증가폭 유지

\*제조업 PMI(기준=50): ('17.2)51.6 → (3)51.8 → (4)51.2 → (5)51.2

- (수출입) 5월 수출 전년동기대비 8.7% 증가한 \$1,910억 달러[4월:8.0%], 5월 수입 전년동기대비 14.8% 증가한 \$1,502억 달러를 기록[4월:11.9%]하며 증가세 확대
- (물가) 5월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대비 1.5% 상승하며 전월치(1.2%)를 상회

※ 중국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조사실업률”이 아닌 “등기실업률”을 발표(4% 내외), 실제 실업률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으므로 신뢰 가능한 지표 개발 전까지 고용 관련 내용 생략

# <참고> 해외경제 주요 지표

(증감률, %)

구 분		'15년	'16년				'17년			
			연간	2/4	3/4	4/4	1/4 <sup>P</sup>	3월 <sup>P</sup>	4월 <sup>P</sup>	5월 <sup>P</sup>
미 국	GDP성장률(전기비)	2.6	1.6	0.4	0.9	0.5	0.3	-	-	-
	산업생산(전기비)	0.7	△1.2	△0.2	0.2	0.2	0.4	0.1	1.1	0.0
	소매판매(전기비)	2.3	3.0	1.5	0.9	1.7	1.0	0.1	0.4	△0.3
	수출(전년동기비)	△4.7	△2.5	△4.6	△0.6	1.4	6.5	6.4	5.0	-
	수입(전년동기비)	△3.6	△1.9	△3.7	△1.4	2.7	7.2	9.0	8.3	-
	실업률	5.3	4.9	4.9	4.9	4.7	4.7	4.5	4.4	4.3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1	1.3	1.1	1.1	1.8	2.6	2.4	2.2	1.9
유 로 지 역	GDP성장률(전기비)	2.0	1.7	0.3	0.4	0.5	0.6	-	-	-
	산업생산(전기비)	2.1	1.4	△0.1	0.4	0.9	0.1	0.2	0.5	-
	소매판매(전기비)	3.1	2.2	0.4	0.3	0.8	0.3	0.2	0.1	-
	수출(전년동기비)	△12.4	0.3	△1.7	1.2	2.2	3.9	2.6	0.6	-
	수입(전년동기비)	△14.6	△1.2	△4.6	△0.4	2.4	6.1	4.9	4.7	-
	실업률	10.9	10.0	10.2	9.9	9.7	9.4	9.4	9.3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0	0.2	△0.1	0.3	0.7	1.8	1.5	1.9	1.4
일 본	GDP성장률(전기비)	1.2	1.0	0.4	0.3	0.3	0.3	-	-	-
	산업생산(전기비)	△1.2	△0.2	0.2	1.6	1.9	0.2	△1.9	4.0	-
	소매판매(전기비)	△0.3	△0.7	0.0	0.5	1.5	△0.2	0.2	1.4	-
	수출(전년동기비)	△8.8	2.3	3.2	7.3	6.4	12.8	11.1	6.4	12.0
	수입(전년동기비)	△19.8	△6.5	△7.3	△3.0	0.6	11.9	14.3	11.0	16.1
	실업률	3.4	3.1	3.2	3.0	3.1	2.9	2.8	2.8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8	△0.1	△0.4	△0.5	0.3	0.3	0.2	0.4	-
중 국	GDP성장률(전기비)	6.9	6.7	1.9	1.8	1.7	1.3	-	-	-
	산업생산(전년동기비)	6.1	6.0	6.1	6.2	6.1	6.8	7.6	6.5	6.5
	소매판매(전년동기비)	10.7	10.4	10.2	10.5	10.6	10.0	10.9	10.7	10.7
	수출(전년동기비)	△3.0	△7.7	△6.4	△7.0	△5.3	8.2	16.4	8.0	8.7
	수입(전년동기비)	△14.3	△5.5	△7.1	△4.4	2.7	24.1	20.4	11.9	14.8
	실업률 <sup>2)</sup>	4.1	4.1	4.1	4.0	4.1	-	-	-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4	2.0	2.1	1.7	2.2	1.4	0.9	1.2	1.5

주 : 1) '17년 3월호부터 수출액·수입액 기준통화를 USD로 통일함에 따라 증감률에 변동이 있음

변경 전	
(기재부 「최근경제동향」기준)	
미국, 중국	USD
유로지역	EUR
일본	JPY

변경 후	
(Bloomberg 기준)	
미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	USD

2)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실업률은 등기실업률로, 비농업호구·나이제한·노동능력 보유·실업보험 납부기간 1년 이상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자로 등록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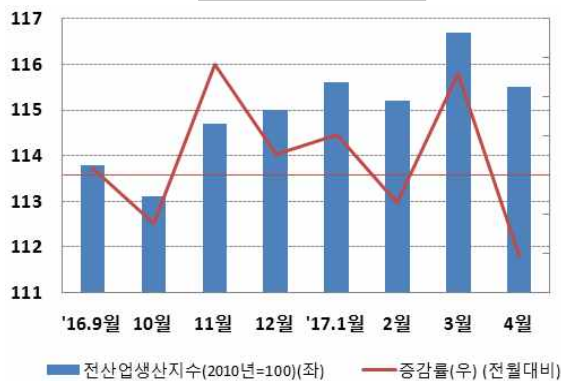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 Ⅱ. 국내 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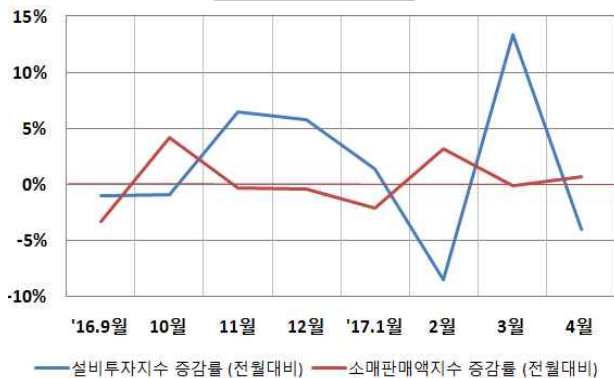
### 1. 산업활동 : 4월 산업생산 및 투자 전월대비 부진, 소비활동 회복 기대

- (생산) 4월 전산업생산지수는 전월대비 **1.0% 감소**한 115.5 <전년동월대비 3.5% 증가>
  - 서비스업(0.1%) 증가에도 불구하고 광공업(△2.2%), 건설업(△4.3%), 공공행정(△0.9)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감소
- (소비) 4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대비 **0.7% 증가** <전년동월대비 2.8% 증가>
  - 화장품 등 비내구재(△0.9%) 판매는 감소하였으나, 가전제품 등 내구재(2.7%)와 의복 등 준내구재(1.9%)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증가
- (투자) 4월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4.0% 감소** <전년동월대비 14.1% 증가>,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4.3% 감소** <전년동월대비 19.4% 증가>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5.0%)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1.4%) 모두 감소, 건설기성(불변)은 건축(0.1%)은 증가하였으나 토목(△15.2%) 공사실적이 줄어 전월대비 감소
-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전월과 동일수준인 **101.0**,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전월대비 **0.2p 상승**한 101.0(2010=100)

전산업생산지수



소비·투자지수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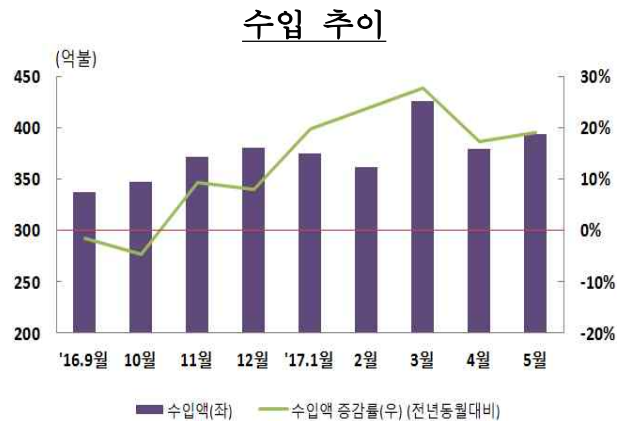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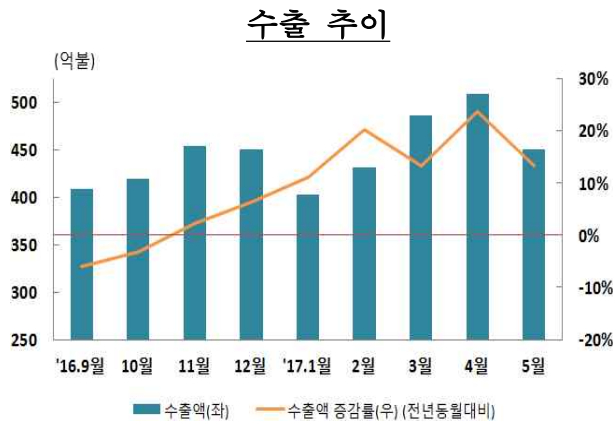
## 2. 수출입 현황

□ (수출) 5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13.3% 증가**[4월:23.8%]한 **\$450억 달러**로 증가세 지속

- 반도체(56.2%)·철강제품(25.6%)·석유제품(30.2%)등 증가, 자동차부품(△11.2%)·무선통신기기(△38.2%) 등 감소

□ (수입) 5월 수입 전년동월대비 **19.1% 증가**[4월:17.3%]한 **\$393억 달러**로 개선세 지속

- 의류·가전제품 등 소비재(6.3%), 원유·석유제품 등 원자재(23.6%), 반도체·기계류 등 자본재(19.3%) 모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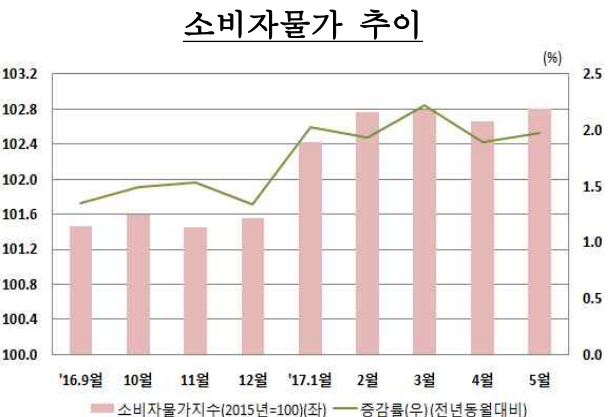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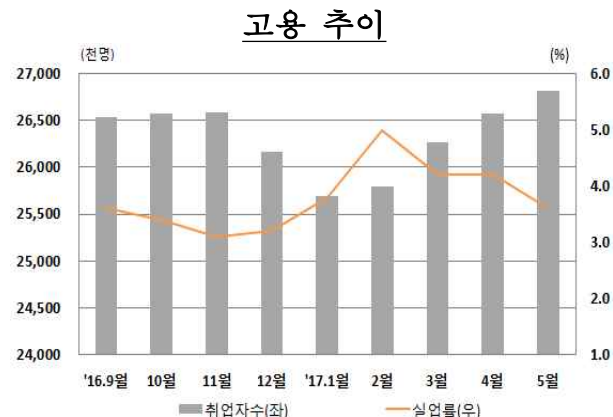
## 3. 고용 및 물가

□ (고용) 고용률·실업률 회복에도 일자리의 질적 개선은 미흡하여 체감지표 역시 악화

- 5월 취업자는 2,682만 4천명,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한 **61.3%**
- 5월 실업자 100만 3천명,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한 **3.6%**
- 5월 기준 제조업 취업자 11개월 연속 감소세, 자영업자 10개월 연속 증가세
- 5월 청년실업률은 **9.3%**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하였으나,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22.9%**로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

□ (물가) 5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2.0% 상승** <전월대비 0.1% 상승>

- 교통(4.5%), 식품·비주류음료(3.4%), 기타상품·서비스(2.5%), 음식·숙박(2.4%) 등 10개 부문 상승, 통신(△0.3%), 오락·문화(△0.4%)는 하락



# 〈참고〉 국내경제 주요 지표

구 분	‘15년	‘16년				‘17년			
		연간 <sup>p</sup>	2/4	3/4	4/4 <sup>p</sup>	1/4 <sup>p</sup>	3월 <sup>p</sup>	4월 <sup>p</sup>	5월 <sup>p</sup>
GDP성장률(전기비,%)	2.8	2.8	0.9	0.5	0.5	1.1	-	-	-
전산업생산지수 <sup>1)</sup>	-	-	112.9	113.9	114.3	115.8	116.7	115.5	-
증감률(전기비,%)	-	-	1.3	0.9	0.4	1.3	1.3	△1.0	-
소매판매액지수 <sup>1)</sup>	-	-	120.0	118.6	121.1	120.6	121.8	122.6	-
증감률(전기비,%)	-	-	2.0	△1.2	2.1	△0.4	△0.1	0.7	-
설비투자지수 <sup>1)</sup>	-	-	110.5	108.4	117.1	123.7	130.3	125.1	-
증감률(전기비,%)	-	-	5.1	△1.9	8.0	5.6	13.3	△4.0	-
수출액(억불)	5,268	4,955	1,260	1,219	1,324	1,321	487	510	450
증감률(전년동기비,%)	△8.0	△5.9	△6.7	△5.0	1.8	14.7	13.2	23.8	13.3
수입액(억불)	4,365	4,061	992	1,023	1,105	1,162	426	380	393
증감률(전년동기비,%)	△16.9	△6.9	△10.2	△5.1	4.1	23.9	27.7	17.3	19.1
실업률 <sup>2)</sup> (%)	3.6	3.7	3.8	3.6	3.2	4.3	4.2	4.2	3.6
소비자물가지수 <sup>3)</sup>	100.0	101.0	100.8	101.0	101.5	102.7	102.8	102.7	102.8
증감률(전년동기비,%)	0.7	1.0	0.8	0.7	1.5	2.1	2.2	1.9	2.0

주 : 1) 계절조정지수(2010년=100) 3) p는 잠정치

2) 원계열

3) 2015년=100

자료 : 기획재정부, 관세청, 통계청



### Ⅲ.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 1. 금리 동향

- 美장기금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 및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하락(국채가격 상승), 美단기금리는 금리인상(6.14) 전후로 완만한 상승세 시현,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며 매파적 긴축에 대한 우려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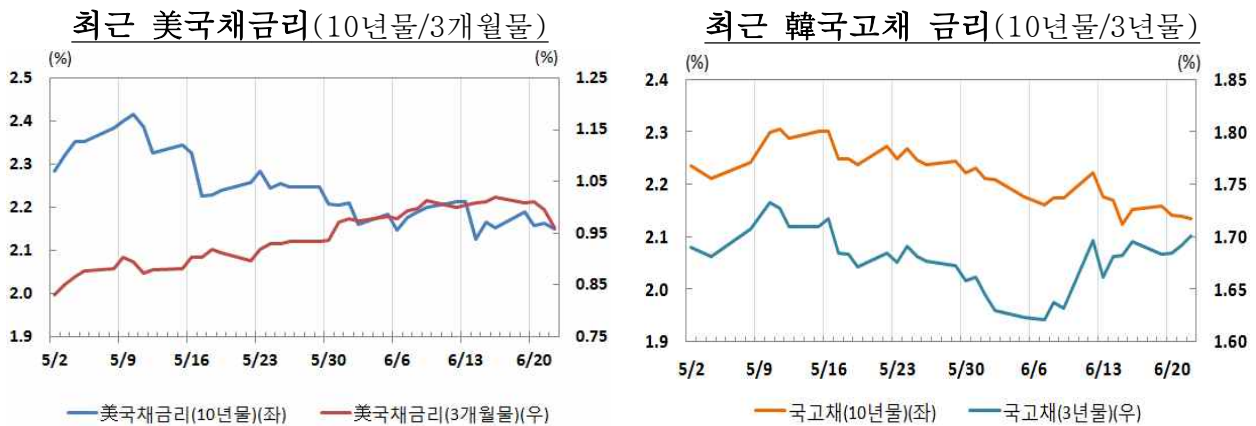
\*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前FBI 국장에게 수사관련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을 담은 메모의 존재가 언론에 공개되며 탄핵론이 제기(5.16)

\*\* 5월 근원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대비 1.7% 상승하여 최근 2년간 최저치 기록, 소매판매 전월대비 0.3% 감소(6.14 발표)

- 美국채(3M,%): 0.897(5.22) → 0.978(6.1) → 1.001(6.12) → 0.960(6.22)
- 美국채(10Y,%): 2.257(5.22) → 2.210(6.1) → 2.214(6.12) → 2.151(6.22)

- 국고채(韓)의 경우, 장기금리는 美국채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며 하락, 단기금리는 외국인 매수 등 시장 수급 영향으로 월초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며 상승

- 국고채(10년물,%): 2.272(5.22) → 2.212(6.1) → 2.222(6.12) → 2.135(6.22)



#### 2. 환율 동향

- (국제환율) 美 달러화, 트럼프 대통령 관련 정치스캔들이 부각되며 친성장 정책의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월 초까지 약세 현상이 뚜렷하였으나 이후 금리 인상(6.14)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로 전환

- 달러인덱스: 99.0(5.2) → 97.2(6.1) → 97.1(6.12) → 97.6(6.22)



- **엔화**는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런던 테러(6.3) 등으로 안전자산으로서의 상대적 가치가 부각되며 월초까지 강세 시현, 이후 미국 금리 인상 및 일본은행의 기준 금리 동결 결정(16일 현지시간) 등에 엔화 매도, 달러 매수세가 유입되며 약세

- 엔/달러: 112.0(5.2) → 111.4(6.1) → 110.0(6.12) → 111.3(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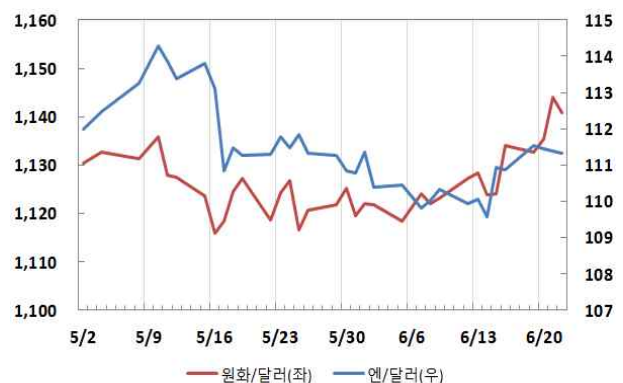
- **(원화환율)** 8일 미국 코미 前FBI 국장의 의회증언과 영국 조기총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며 상승(원화약세), 이후 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의 매과적 입장이 부각되며 추가 상승

- 원화/달러: 1,131(5.2) → 1,122(6.1) → 1,127(6.12) → 1,141(6.22)

달러 지수



달러 환율(對원화, 對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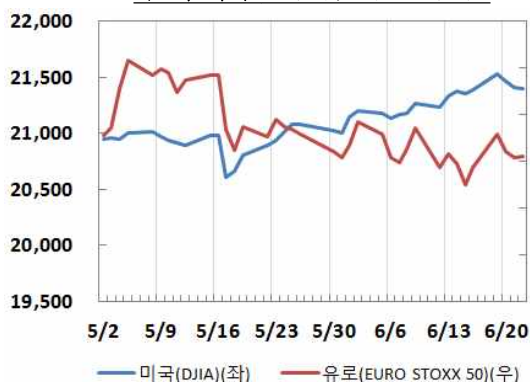


### 3. 주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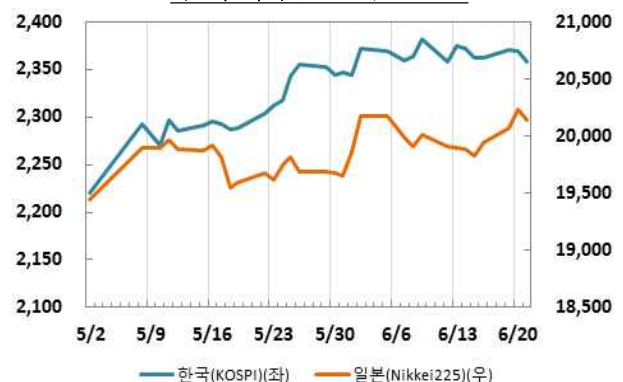
-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기술주 반등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19일:21,529) 경신, 코스피 지수 역시 국내외 경기회복 기대 및 기업이익 증가 등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9일:2,382)하는 등 오름세 지속

구 분		‘17.5.2	‘17.6.1	‘17.6.22
미국	Dow Jones	20,950	21,144	21,397
유로	Euro Stoxx	3,578	3,567	3,556
한국	KOSPI	2,220	2,345	2,370
일본	Nikkei225	19,446	19,860	20,111

주가지수(미국, 유로지역)



주가지수(한국, 일본)



# 〈참고〉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기말 종가 기준)

구 분			‘15년	‘16년				‘17년		
				1/4	2/4	3/4	4/4	3월	4월	5월
금 리 (%)	정 책	미국 FF금리 <sup>주)</sup>	0.25-0.50				0.50-0.75	0.75-1.00		
		일본 IOER금리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유로존 금리	0.0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국 제	미국 국채(3M)	0.153	0.209	0.261	0.277	0.505	0.757	0.805	0.971
		미국 국채(10Y)	2.268	1.771	1.484	1.576	2.445	2.386	2.281	2.206
		일본 국채(10Y)	0.265	△0.048	△0.233	△0.076	0.043	0.070	0.015	0.045
	국 내	국고채(3Y)	1.662	1.444	1.247	1.247	1.638	1.662	1.675	1.661
		국고채(10Y)	2.076	1.793	1.469	1.398	2.074	2.177	2.196	2.230
국 제 환 율	¥ / U S \$		120.4	112.3	102.6	100.8	116.6	111.8	111.2	110.9
	U S \$ / €		1.093	1.132	1.109	1.122	1.045	1.068	1.087	1.117
원 화 환 율	₩ / U S \$		1,173	1,144	1,152	1,101	1,208	1,118	1,138	1,120
	₩ / 1 0 0 ¥		974	1,019	1,123	1,092	1,035	1,000	1,023	1,009
주 가	미국 Dow Jones		17,425	17,685	17,930	18,308	19,763	20,663	20,941	21,029
	일본 Nikkei225		19,034	16,759	15,576	16,450	19,114	18,909	19,197	19,651
	유로 Euro Stoxx		3,268	3,005	2,865	3,002	3,291	3,501	3,560	3,555
	코 스 피		1,961	1,996	1,970	2,044	2,027	2,160	2,205	2,347
	코 스 닥		682	688	675	681	631	619	628	652

주 : ‘16년 12월 14일, ‘17년 3월 15일, ‘17년 6월 14일 각각 0.25bp 인상

자료 : 국제금융센터, 금융감독원

#### IV. 국제자원시장 동향

##### □ 유가 : OPEC 감산연장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잉 우려 지속으로 급락, 연중 최저치 기록

- 5월말 OPEC의 9개월 감산 연장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 원유생산량 증가 등 공급과잉 우려감이 증폭되며 한 달 사이 약 10달러 급락

※ 두바이유(\$/bbl): (5.23일) 53.1 → (6.22일) 43.5

- EIA가 6월 월간보고서에서 2017년과 2018년 미 원유생산량을 전월대비 각각 0.3%, 0.4% 상향 조정한 933만 b/d, 1,001만 b/d로 추정하는 등 미 셰일원유 공급 증가세 지속으로 OPEC 감산합의가 무력화될 가능성 존재
- 사우디 등 중동국가들의 카타르 국교 단절 시행에 따른 OPEC 결속력 약화 우려 확대, 5월 OPEC 수출량이 전월대비 100만 b/d 증가(로이터 추정)한 점도 하락요인으로 작용

##### □ 천연가스 가격 : 냉방수요 기대감 하락으로 15주래 최저치 기록

- 6월 하순에 걸쳐 미국 지역의 기온상승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일기예보로 미 천연가스의 하절기 냉방수요 증가 기대감이 꺾이면서 가격하락폭이 확대되어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3월 초 이래 최저치 기록(\$2.564/mmBtu, NYMEX, 6.21일)

##### □ 연료탄 가격 : 5월 중순 연중 최저치 기록 후 상승하여 80달러대 회복

- 중국의 석탄사용 금지 정책에 따른 수요둔화 전망으로 가격하락세를 보이며 5월 중순 연중최저치 기록(\$73.15/톤, 뉴캐슬FOB, 5.19일)
- 이후 중국 정부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규모 탄광 폐쇄를 가속화하는 생산설비 감축 계획을 밝힘에 따라 석탄가격이 상승하여 80달러대 회복

##### □ 주요 광물자원 가격 : 전기동 소폭 상승, 니켈·아연은 6월 들어 연중 최저치 기록, 철광석·우라늄 가격 모두 하락세

- 전기동 가격은 중국 수요둔화 우려로 5월 초 연중 최저치 기록 이후 인도네시아 광산 파업 등으로 가격 소폭 상승
- 니켈, 아연 가격은 수요둔화 우려로 6월 들어 연중 최저치 기록
- 철광석 가격은 3월 중순 이후 철강 수요 위축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며 6월 중순 연중 최저치 기록

- 우라늄은 글로벌 수요둔화 우려 지속으로 가격 약세가 장기화되며 6월 초 연중 최저치 기록
- 작년말 연중 최저치 경신(\$17.75/lb, NYMEX, '16.11.30일), 이후 소폭 상승했으나 3월 초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6월 초 파운드당 20달러선 붕괴

### 주요 자원가격 추이

(기말 종가 기준)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1/4	4월	5월	6.22	연중 최고	연중 최저
유가 (\$/배럴)	Brent	37.28	56.82	52.83	51.73	49.66	45.22	57.1 (1.6.)	44.82 (6.21.)
	WTI	37.04	53.72	50.6	49.33	49.66	42.74	54.45 (2.23.)	42.53 (6.21.)
	Dubai	32.19	53.83	50.78	50.16	50.09	43.50	55.45 (2.3.)	43.50 (6.22.)
천연가스 (\$/백만BTU*)		2.337	3.724	3.190	3.276	3.071	2.894	3.424 (5.12.)	2.564 (2.21.)
연료탄(전력용) (\$/ton)		51.58	92.00	82.6	80.54	74.54	82.62	89.2 (4.7.)	73.15 (5.19.)
우라늄 (\$/lb)		34.4	20.4	23.25	22.75	19.75	20.05	26.75 (2.10.)	19.15 (6.5.)
철광석 (\$/ton)		43.57	78.87	80.39	68.8	57.02	56.53	94.86 (2.21.)	53.36 (6.13.)
전기동 (\$/ton)		4,701	5,501	5,849	5,689	5,615.5	5,736	6,145 (2.14.)	5,466 (5.8.)
니켈 (\$/ton)		8,700	10,035	9,875	9,485	8,810	8,910	11,045 (2.20.)	8,715 (6.2.)
아연 (\$/ton)		1,616	2,563	2,783	2,640	2,572	2,697	2,971 (2.13.)	2,436 (6.13.)

주 : 유가는 WTI유 선물 익월물/브렌트유 ICE 익월물/두바이유 현물가격, 천연가스/우라늄은 뉴욕 상업거래소(NYMEX), 연료탄은 뉴캐슬 FOB, 철광석은 Fines 현물가격으로 중국수입가 CFR, 전기동/니켈/아연은 런던금속거래소(LME), \* BTU : British Thermal Unit

자료 : 국제금융센터, KoreaPDS

### EIA의 국제유가 전망

(단위: \$/bbl)

기준 유종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	평균	1/4	2/4	3/4	4/4	평균
WTI	48.67	43.33	51.64	49.82	51.68	50.00	50.78
Brent	52.32	43.74	53.57	51.52	53.68	52.00	52.69

주 : 美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전망시기: 2017년 6월>, 회색부분이 전망치

## V. 당행 주요 지원 산업 동향

### □ 조선: 5월 들어 비교적 활발한 수주를 나타냈으나 여전히 부진한 수준

- '17년 5월 기준 누적수주량은 전년동기대비 352% 증가한 207만CGT를 기록
  - 5월 수주량은 21척 79만CGT로 20개월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으나 여전히 정상화된 수준(약 100만CGT/월)은 아님
  - 기저효과에 의한 누적수주 증가폭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5월 누적 건조량 486만CGT의 약 42%에 불과한 부진한 수준임
- '17년 5월 기준 누적수주액은 전년동기대비 324% 증가한 \$42.3억 달러를 기록
  - 5월 수주액은 전년동월대비 214.6% 증가한 \$12.6억 달러
- Clarkson의 5월 신조선 가격지수는 대부분 선종의 가격지수가 약하게나마 상승 반전하며 전월대비 1.18 point 상승한 122.74를 기록
- 5월 누적선박수출은 해양플랜트 수출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23.6% 증가한 \$165.4억 달러

### 선박 수주 및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계	1/4	4월	5월
수주 실적	304.7 (△40.0)	463.3 (52.0)	329.4 (△28.9)	236.7 (△28.2)	45.8 (△81.1)	42.3 (324.2)	22.3 (375.3)	7.5 (7,370.0)	12.6 (142.3)
수출 실적	397.4 (△29.8)	371.7 (△6.5)	398.9 (7.3)	401.7 (0.7)	342.7 (△14.6)	165.4 (23.6)	69.7 (△12.3)	71.3 (102.9)	24.4 (27.5)

주 : ( )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Clarkson, 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 □ 자원개발: 유가회복으로 2016년 4분기 이후 석유 상류부문 M&A 증가세

- 세계 석유 상류부문 자산 거래는 2012년 \$2,50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저유가 영향으로 2016년 상반기까지 거래 감소세(WoodMackenzie)
- 2016년 하반기,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대에서 안정화됨에 따라 세계 석유자산 M&A 거래가 반등하기 시작하여 2017년 1분기까지 거래 증가세
  - 2016년 자산 거래건수는 총 1,024건(전년대비 31% 감소), 거래금액은 약 \$1,200억 달러대로 전년대비 절반수준에 그쳤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거래 증가세

- 미국 셰일 자산이 세계 석유 상류부문 자산거래를 주도하여 전체 거래의 약 절반 정도 차지
- 과거에는 주로 독립계 석유기업들이 셰일개발을 주도했으나 최근에는 메이저 석유기업들도 셰일자산 인수와 자본투자를 확대하는 추세
- 다만 최근 원유시장의 공급과잉 우려 확대로 유가가 다시 40달러 초중반대로 하락하고 있어 향후 국제유가 향방에 따라 M&A 시장이 다시 위축될 가능성도 존재

□ **해외건설: 5월 수주는 전년대비 큰 변동이 없으나, 6월 수주액은 대폭 증가 예상**

- '17년 5월 해외건설 수주액은 \$12.5억 달러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
- '17년 5월 기준 누적수주액은 \$134.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2% 감소
- 2016년 부진했던 플랜트 수주가 회복되고 있으며, 하반기 중동지역 대형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도 유효해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대비 늘어날 전망
- 해외건설 수주의 68%가 플랜트에 집중되어 있어, 교통 등 인프라 분야에 대한 공종 다양화가 필요

해외건설 수주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계	1분기	4월	5월
수주실적	649 (9.8)	652 (0)	660 (1.2)	461 (△30.1)	282 (△38.8)	134.4 (△2.2)	93.7 (△17.1)	28.2 (154)	12.5 (△6)

주 : ( )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해외건설협회

□ **ICT: 7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시현,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의존도(64.8%) 심화**

- 5월 ICT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7.4% 증가한 \$154.1억 달러, 수입은 13.4% 증가한 \$79.9억 달러, 수지는 \$74.2억 달러 흑자 달성
- 반도체(\$76.3억 달러, 전년동월대비 56.0%↑)는 메모리반도체(\$48.9억 달러, 74.9%↑)와 시스템 반도체(\$21.6억 달러, 42.1%↑) 동반 호조로 3개월 연속 \$70억 달러대 수출을 달성
- 디스플레이 패널(\$23.6억 달러, 전년동월대비 7.6%↑)은 LCD 패널 가격 상승, OLED 수요 증가로 7개월 연속 수출증가세 유지

- 휴대폰(\$13.5억 달러, 전년동월대비 43.4%↓)은 스마트폰의 해외생산 확대, 부분품 현지조달 증가로 수출 감소세 지속

\* 휴대폰 수출증감율(%): ('17.2)△26.0→(3)△31.3→(4)△19.3→(5)△43.4

### ICT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계	1/4	4월	5월
수출 실적	1,552.4 (△0.9)	1,726.8 (11.2)	1,762.3 (2.1)	1,728.8 (△1.9)	1,625.0 (△6.0)	749.7 (19.2)	440.1 (18.1)	155.5 (24.2)	154.1 (17.4)

주 : ( )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 태양광: 4월 모듈 및 폴리실리콘 수출 부진 지속

- 2017년 4월 모듈 수출액은 전년대비 25% 감소한 \$1.13억 달러였으며, 폴리실리콘 수출도 전년대비 55.8% 감소한 \$57백만 달러에 불과
  - 폴리실리콘 및 모듈 단가하락에 따른 수출액 감소는 불가피하나 물량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
- 對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폴리실리콘은 하반기 중국 태양광 설치량이 감소함에 따라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
  - 중국 정부의 보조금제도 변경(하반기 예정)\* 전 태양광 설치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현될 것으로 예상

\* 보조금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약 20% 정도 삭감될 것으로 예상

### 태양광 모듈 및 폴리실리콘 수출실적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계	1분기	3월	4월
태양광 모듈	9.7 (7.4)	13.2 (△36.1)	18.9 (43.2)	4.67 (△19.7)	3.54 (△19.5)	1.30 (△29.0)	1.13 (△25.1)
폴리실리콘	13.1	12.7	12.6	3.39 (△20.8)	2.82 (△5.4)	0.90 (△21.7)	0.57 (△55.8)

주 : ( )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무역협회



## □ 중소기업: 생산 및 내수·수출 업황 개선세 주춤

- ‘17년 4월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8% 상승, 평균가동률은 0.5%p 하락
    -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108.4) 대비로는 1.8% 상승했으나, 전월(116.3)보다는 5.2% 하락한 110.3 기록
    - 가동률은 ‘목재 및 나무제품’, ‘식료품’ 등 13개 업종에서 전월대비 상승,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가구’ 등 9개 업종에서는 하락해 전월과는 동일하나, 전년동월대비로는 0.5%p 하락한 73.5%
  - ‘17년 5월 중소기업 업황실적 SBHI(중소기업건강도지수)는 ‘17년 4월보다 2.3p 하락한 83.4
- ※ SBHI(Small Business Health Index)는 중소기업 경기지수(실적기준)로 100이상이면 전월보다 호전, 100미만이면 전월보다 악화, 100이면 전월과 보합수준 (2010년 이후 최저치 74.3, 최고치 95.6)
- 내수판매(84.6→83.4, 1.2p ↓), 수출판매(89.9→85.4, 4.5p ↓), 자금사정(80.4→ 78.9, 1.5p ↓) 등 대부분 분야에서 전월대비 하락
  - 중소기업대출(6.1조원 → 2.8조원)은 4월말 휴일로 결제성 자금 대출의 상환이 5월초로 이연됨에 따라 증가폭이 축소

### 중소기업 주요 업황 지수 추이

구 분	구 분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생산지수	(2010년 =100)	103.9 (0.3)	108.6 (0.0)	104.3 (0.0)	110.7 (1.7)	102.0 (-2.0)	108.7 (0.1)	104.0 (-0.3)	115.2 (4.1)	107.2 (5.1)	110.3 (1.8)	-
평균가동률	(%)	71.5	72.1	71.8	72.1	72.0	74.0	73.3	73.6	72.7	73.5	-
자금대출	(조원)	15.4	16.5	15.8	5.0	9.5	10.1	9.5	1.5	10.3	2.8	-
중소기업 건강도지수 (SBHI)	경기전반	79.0	82.4	80.8	84.2	78.1	86.6	83.7	81.1	77.9	85.7	83.4
	내수판매	78.6	82.1	80.2	84.3	78.1	85.9	83.1	81.9	77.2	84.6	83.4
	수출판매	84.4	82.6	80.6	80.4	77.6	86.7	86.0	84.9	86.8	89.9	85.4
	자금사정	78.4	80.5	79.7	81.2	77.0	82.8	81.5	79.0	75.5	80.4	78.9

- 주 : 1) 괄호 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감률  
 2) 자금대출은 예금은행 원화대출(은행신탁 포함) 금액으로 기간 중 말잔 증감  
 3) 중소기업 건강도지수는 2015.1월부터 중소기업 전산업으로 조사범위 확대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중소기업중앙회